

# “日 약국 경쟁력은 다각화된 서비스”

홈케어파마시 다나시점- 재택방문 주력하며 약사 영역 확대  
고엔마에약국- POP와 약수첩은 기본, 화장실까지 특화  
HAC 스퀘어가든점- 매대별 POP로 환자 선택권 넓혀  
마리약국- 50년 역사 동안 지역주민과 유대관계 돈독

정지은 기자 | medi@binews.co.kr



비즈메디 한국의약품(대표 정동명)이 지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에서 '2016 약국경영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단은 4개의 일본 우수 약국 견학과 함께 제34회 건강박람회 및 실버종합박람회, 2016 일본 드럭스토어쇼를 참관했으며, 한방 전문 제약사인 쓰무라제약을 방문하고, 일본 도매업계 1위인 알프레사와 미팅을 가지는 등 어느 때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일본의 약업계 현실을 둘러봤다.

이번 연수단에는 총 38명이 함께 했다.

우선 새로운 집행부 출범과 함께 사업 구상을 위해 대한약사회 유대식 전 정책위원장과 강남구약사회 신성주 회장, 문민정 부회장, 정성숙 학술위원장, 김영근 홍보위원장, 김성은 사무국장, 구로구약사회 권혁노 회장, 최흥진 부회장 등 약사회 임원들이 참가했으며, 성균관대 약대 오성곤 겸임교수도 새로운 커리큘럼을 위해 비행길에 함께 했다.

올해로 7번째 연수단원이 된 부산 사하구 오거리약국 황은경 약사, 4번째 연수단을 찾은 전주시 다솜약국 이종률 약사도 함께 했으며, 매년 참가했던 전주프라자약국 류중현 약사는 올해 근무약사인 유익한 약사와 허성국 실장에게 기회를 선물했다. 파주 공약국의 공영익 약사도 두 번째로 연수단을 찾았다.

이밖에도 친구 사이인 청주부부약국 박정경 약사와 청주 메디포

스약국 장애리 약사, 청주 우리약국 김미연 약사, 부천 제일프라자 약국 이경남 약사(IMS Health 코리아) 등 네 명의 젊은 약사가 연수 내내 활력을 불어넣었다.

도매상과 의약계 전문지 등 보건의료계 각계의 참여도 이어졌다. 데일리팜의 주경미 부사장과 이미지 본부장, 국내 최대 도매상인 지오영의 박명숙 고문과 함께 (사)한국당뇨협회 임영배 총무이사과 MMGI 이명숙 대표가 동행했다.

제약사로는 녹십자, 일동제약, 서울제약이 참가했다. 서울제약의 김정호 대표이사와 개발학술실 홍사용 이사, 중앙연구소의 신준호 책임연구원, 녹십자에서는 김경조 전무(OTC 본부장), 김진웅 OTC본부 마케팅팀 팀장이 연수단에 새롭게 합류했고, 매년 참가하는 일동제약에서는 OTC CM팀의 양정은·김준경 대리와 라이선스팀의 김영아 대리, OTC 기획팀의 박기환·박진희·변세현 주임이 일본을 찾았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2회에 걸쳐 연수단이 보고 듣고 느낀 생생한 경험을 소개한다. 이번호에는 일본 우수약국 소개와 함께 건강박람회 & 드럭스토어박람회 현장을 스케치하고, 다음호에서는 제약사와 도매상 탐방기, 그리고 연수단원들이 함께한 세미나의 뒷이야기를 전한다.

올해 연수단이 방문한 약국은 재택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홈케어파마시 다나시점(니시도쿄시), 환자 서비스에 특화된 고엔마에약국(하치오지시), 대형 드럭스토어체인

CFS의 HAC 스퀘어가든점, 드럭스토어형 동네약국인 마리아약국 등 네 곳이다.

## 재택의료의 첨병 '홈케어파마시 다나시점'



약국 유리벽에 재택방문이 가능하다는 POP를 부착하고, 개·폐문 시간과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있다.



연수단에게 약국 전반을 설명하는 나카무라 회장



약국의 2층은 재택방문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실로 쓰인다.



재택 환자별로 바구니에 보관된 처방전과 약봉투



약제사가 재택환자를 방문할 때 사용하는 오토바이



약국 2층에는 무균실이 있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방진복을 입어야 한다.



약국 1층과 한쪽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방



일본 약국에서는 복약지도 카렌더를 활용해 복약순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약국에서는 복약지도 카렌더를 활용해 복약순도를 높이고 있다.

도쿄도 니시도쿄시에 위치한 '홈케어파마시 다나시점'은 다나시약품이 운영하는 9개 약국 중 하나이다.

다나시약품은 1986년에 설립되어 현재 약사와 조제보조, 사무원을 포함해 8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처방 조제와 OTC 판매뿐 아니라 환자의 자택이나 시설에 방문해 의약품 관리를 지도하는 재택방문, 내당능장애 환자들을 위한 당뇨병 지도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중 홈케어파마시 다나시점은 하루 평균 300매의 처방

전을 받는데 주변에 종합병원이 있어 내과를 비롯한 다양한 처방전이 접수된다. 현재 90개 정도의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고 있으며, 약 2천 종류의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다. 근무하고 있는 약사는 10명, 사무원은 5명이다.

**94년 재택의료 시작, '방문약제관리지도료' 수가 신설  
약사 2명이 환자 90명 관리, 1회 방문 5만원의 수가**

홈케어파마시 다나시점에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재택